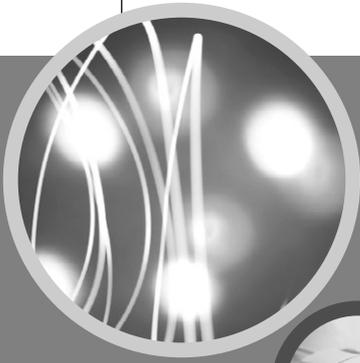


『광학세계』와 친구 하면서...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구현정

그리고 보니 벌써 『광학세계』라는 전문 잡지와 친구가 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광학산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에서 근무 중인 구현정입니다.

처음 원고청탁을 받고 광학업계에 몸담고 있지 않은데다 글재주도 없는 사람으로서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할지 난감했지만, 비전문가이며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광학세계』를 접한 솔직한 느낌에 대해 서술하는 것도 독자들에게 또 다른 느낌을 전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부족하나마 본 지면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경제발전동향과 산업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탐색하던 차에 광학업계에 종사하는 친구의 소개로 우연하게 『광학세계』를 접하게 되었고, 새로운 정보를 얻은 느낌은 신선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광학세계를 접할 때 느낌은 광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보통사람으로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졌으며, 친구의 설명을 듣고 책의 내용을 정독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의 설명에 따르면, 광학기술이 우리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복사기, 카메라, TV화면 등에 적용된다는 말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열심히 구독을 했고 IT산업과 맞닿아 첨단산업으로 대두되는 LCD산업의 기초가 광학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첨단산업에 광학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분야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기업이익우선으로 커나가는 대기업과는 달리 작은 중소기업에서 끊임 없는 기술개발로 입지를 굳히며 성장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기업인의 노력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학분야는 생명과학이나 정보기술처럼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수한 기술력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많은 연구개발과 노력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요즘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스마트폰에서부터 우리가 매일 접하는 생활가전제품과 산업장비, 첨단 의료기구, 사무용품, 기타 산업자재 등 쓰임이 많은 광학분야에는 많은 꿈과 비전이 있고 앞으로 뻗어 나가야할 세계시장은 무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에는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하고 그때는 어떤 식의 첨단기술들이 우리주변에서 생활의 편리를 제공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때쯤 되면 광학기기가분야가 다른 산업발전과 조화를 이루며 우리생활의 많은 부분을 풍요롭게 하리라 기대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문용어들이 많고 다소 딱딱한 감도 있지만 『광학세계』는 저처럼 비전문인들도 알기 쉽게 구성되어있고 국내동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관련 산업에 대한 동향까지 자세하게 게재해 광학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습득에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식과 새로운 분야를 알려준 『광학세계』의 고마움을 오래도록 간직하며 새해에는 『광학세계』속에 보물들이 자꾸 많아지고 값진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